

'2026 가축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 열려

- 농촌진흥청, 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사료 정책부터 메탄 저감 기술까지 최신 연구 성과 공유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뒷받침, 정밀영양 연구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학회, 영양사료연구회와 공동으로 7월 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가축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밀영양·사양 기술의 발전 방향과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생산자, 단체·협회 등 참석자들은 내외 축종별 정밀영양·사양 정책과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사료산업 정책 방향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정밀영양 연구 성과를 나누고, 기후 위기 대응,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등 축산업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사료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홍승탁 사무관) ▲돼지 유래 온실가스에 대한 영양학적 관점(건국대학교 김법균 교수) ▲산란계 질소 저감을 위한 사료산업 동향 및 연구(제일사료 유재홍 박사) ▲반추가축 장내 발효 저감 메탄저감제 개발 연구 현황 (축산과학원 이성신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영양학적 접근과 연구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축산분야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정밀영양·사양 기술 고도화와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가축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담당자	연구관	강환구 (063-238-7455)
				

2026년 가축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 개최

□ 개요

- 목적: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축종별 정밀영양·사양 연구 및 정책 공유, 수요자 맞춤형 연구·제도 발굴
- 일 시: 2026년 7월 8일(수), 15:00 ~ 18:0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 한라홀 A
 -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 참석자: 관련 연구기관, 생산자 및 단체·협회 등 200명 내외

□ 세부일정

일시	(분)	주요 내용	진행
14:00 ~ 15:00	30'	○ 등 록	강환구 연구원
15:00 ~ 15:10	10'	○ 개 회 식 - 원장님 환영사 - 기념촬영	
15:10 ~ 15:35	50'	○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사료 정책 방향 (농식품부 홍승택 사무관)	좌장: 김지혁 교수 (공주대)
15:35 ~ 16:00		○ 산란계 질소저감을 위한 사료 산업 동향 및 연구 (제일사료 유재홍 박사)	
16:00 ~ 16:10	20'	휴 식	
16:10 ~ 16:35	50'	○ 돼지 유래 온실가스에 대한 영양학적 관점 (건국대학교 김법균 교수)	좌장: 이홍구 교수 (건국대)
16:35 ~ 17:00		○ 반추가축 장내발효 저감 메탄저감제 개발 연구 현황 (축산과학원 이성신 박사)	
17:00 ~ 17:10	10'	○ 종합토론 준비	
17:10 ~ 18:00	50'	○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영양학적 접근 및 연구 혁신 방안 * 홍승택 사무관, 김법균 교수, 유재홍 박사, 이성신 박사	좌장: 이성대 과장 (축산원)
18:00 ~		○ 폐회	